

# “지역과 함께한 ‘극단 까치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고 싶어”

광주 무대 지켜온 극단 창단 40주년...20일 ‘꽃머느리’ 기념공연  
1985년 석산고 연극동아리로 시작...서울서 여러 장르 활동 경험  
작품성·대중성 인정 불구 지역 극단 이어갈 다음세대 부재 속제로

무대 위의 조명이 켜지고, 인물이 등장한다. 대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이미 관객은 그들의 숨결에 귀를 기울인다.

지난 수십 년간 광주의 무대를 지켜온 극단이 있다. 바로 ‘극단 까치놀’. 연극에 대한 애정 하나로 지원도 인프라도 미약했던 지역에서 연극이라는 소중한 씨름을 붙들고 마흔 해의 시간을 이어왔다. 까치놀의 40주년은 단순히 한 극단의 역사가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며 존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극’이라 할 수 있다.

까치놀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단 40주년 기념작인 연극 ‘꽃 머느리’를 무대에 올린다. 남해의 작은 섬 ‘홀섬’을 배경으로, 늙은 어머니와 세 아들의 단조로운 일상이 외지에서 들어온 머느리로 인해 흔들린다는 이야기이다.

가족의 붕괴와 인간의 욕망, 생존 본능을 파고드는 정통 사실주의 희곡으로, 고(故) 김창일 작가의 작품을 30여 년 만에 새롭게 올리는 무대다. 까치놀 이영민 대표는 김창일의 제자이자 배우로, 연극인으로 다시 무대에 설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또한 광주 연극의 맥을 이어온 까치놀의 정체성이자 연극적 유산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극단의 시작은 지난 1985년, 석산고 연극동아

리였다. 당시만 해도 광주에는 전문 극단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연극은 그저 축제 무대에 오르는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실을 차리고 대외 공연을 기획하며 ‘극단’이라는 이름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때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춘들이었다.” 이 대표의 회상처럼 연극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작품을 하고 싶어서 무대에 올랐다.

1990년대 중반, 까치놀은 서울 대학로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당시 서울은 포스트드라마, 서사극, 난버벌 퍼포먼스 등 연극 양식의 실험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소극장 ‘시월’을 운영하며 직접 극단을 이끌게 된 이 대표는 “광주의 연극은 마당극이나 리얼리즘 일색이었지만, 서울은 실험적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덕분에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2008년,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커지고 상주단체 선정 등 기회가 점차 늘어나면서 까치놀은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광주 광산구, 서구, 장흥, 담양 등 다양한 지역문화회관과 협력해 본격적인 지역 밀착형 창작극에 나섰다. 장흥 지명의 유래와 고려 인종과 태후 이야기를 다룬 ‘공예태후’, 담양 창평의 전설을 야외극으로 풀어낸 ‘쌀엿 잘 만드는 집’, 시인 박용철의 삶을 무대에 옮긴 ‘나두야 간대’까지. 까치놀은



극단 까치놀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이영민 대표(왼쪽)와 오는 20일 공연 예정인 40주년 기념작 ‘꽃머느리’.

지역을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삼아왔다.

이들의 공연은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에서 주목 받았다. 전국연극제 은상을 비롯해 광주연극제 대상, K-Theater Awards 베스트 작품상, 일본 삿포로 극장제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지속성’이다. 창단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공연을 이어왔으며,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제작과 티켓 수익, 지역 기업 협력 등을 통해 자립 구조를 구축해 온 것.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지역 극단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작품 한 편에 평균 20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지원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지원을 받으면 유료 티켓 판매가 제한돼 공연의 지속성과 자율성에 제약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의 부재’다. 연극을 전공하고도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대부분 수도권으로 떠난다. 이 대표는 “출

현의 경우 창작 아카데미, 멘토링, 공간과 예산 등이 갖춰진 덕분에 오히려 서울 배우들이 내려가 활동을 한다. 시스템을 마련해야 사람이 남고 예술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연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이 남을 수 있는 토대’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까치놀은 이제 40주년을 지나 다음 막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의병장 고경명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불꽃’을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까치놀은 그동안 순수연극의 대중화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무대를 지켜왔다”며 “그 바탕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연극 ‘공예태후’

## 익숙한 듯 낯선 ‘현실 너머의 공간’

리일천 사진전, 9월 9일까지 드영미술관

같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또는 동일인이 동일한 공간을 보더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게 된다. 그 순간은 ‘문득’ 이뤄지게 되고 뇌리에 각인된다.

사진작가 리일천이 포착하는 것은 어느 순간 ‘비유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은 연출이나 조작 등과는 거리가 멀다. 있는 그대로 장면을 담아내는 작품은 그 이면에 다양한 의미를 함의한다.

리일천 작가의 전시가 드영미술관에서 오는 9월 9일까지 열린다. ‘Phenomenon Space-Chaosmos of Healing’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는, 말 그대로 현상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작가는 예고 없이 마주친 공간의 장면을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한다.

‘Absence’ (부재)는 화면을 양분하고 있는 서로 다른 분위기를 렌즈에 담은 작품이다. 왼쪽의 공간은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다. 금이 갈라진 바닥 틈새 너머로 흰 의자가 놓여 있는데 부재는 사람의 부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의 없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른쪽은 연분홍색의 벽면으로 채워져 있어 부재와는 다른 분위기를 발한다. 작가가 상정하는 부재와 관람객이 인식하는 부재 사이에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해, 해석의 가변성을 노정한다.

‘Phenomenon Space III’ (현상공간 3)은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현상공간은 추상화 같기도, 막다른 골목을 뚫힌 듯 묘한 것 같기도 하다. 흑백이 구현한 미묘한 빛,



‘Phenomenon Space III’ (현상공간 3)

그림자의 흐름, 막다른 골목의 이미지 등은 저편 공간 너머가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로 느끼게 한다.

리 작가는 “사진은 현실 너머의 공간 너머의 공

간을 담아내는 데 색다른 묘미가 있다”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나타로 그려내는 시대’ 피아니스트 윤수정 독주회

18일 전남대 예향홀

베토벤에서 베르크, 프로코피예프까지. 소나타를 통해 각 시대의 미학과 정신을 조명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윤수정(사진)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예향홀에서 ‘소나타로 그려내는 시대’를 주제로 독주회를 연다. 이번 무대는 광주·전남 지역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모임 ‘아미치 디 피아노’의 마스터스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다. 공연은 고전에서 낭만, 현대에 이르는 피아노

소나타의 흐름을 따라간다. 먼저 베토벤 후기 소나타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30번 마장조 Op. 109’가 서막을 연다. 감정의 깊이를 선율에 담아낸 이 작품은 고전 양식 속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 돋보인다. 이어지는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사단조 Op. 22’는 내면의 격정과 환상이 교차하는 낭만주의 정수를 들려준다.

후반부에는 20세기 피아노 문헌을 대표하는 두 작품이 이어진다.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1번’은 무조성과 격렬한 화성어법으로 전쟁 전야의 불안을 그리며, 프로코피예프

의 ‘피아노 소나타 6번 가장조 Op. 82’는 격동의 시대를 반영한 폭발적 에너지로 무대를 장식한다.

윤수정 피아니스트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과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다수의 국제 콩쿠르와 연주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전남대와 선화예술고, 계원예술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형식으로 규정되던 소나타가 각 시대의 언어로 변주되어가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보여드



리고 싶다”고 전했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미술상’ 청년작가 공모

운영위, 27일까지 접수

역량 있는 청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미술상 청년작가를 올해도 공모한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탁)는 31회째를 맞는 ‘광주미술상’ 청년작가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광주·전남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매년 이어오는 지역미술 활성화 사업이다. 지원자는 응모 원서를 비롯한 서류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하며 포트폴리오는 작가소개를 비롯해 작품세계, 개인전 계획안을 포함해 25쪽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포트폴리오와 개인전 도록은 우편이나 사무국 방문으로 별도 제출한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청년미술인(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및 단체이다. 광주·전남 출생이거나, 소재대학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타지 출신일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활동한 작가로 5년 이내에 개인전을 개최해야 한다.

서류심사(6.28)를 통과하면 1차 포트폴리오 심사로 3배수 후보를 압축하고, 당일 2차 본심사에서 후보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창작활동비(분할지급) 및 도록제작비, 광고비 등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수상작가 초대 개인전은 12월,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건탁 이사장은 “광주 미술상은 지난 1995년 첫 창작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1회째를 맞았다”며 “관심있는 청년 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